벤투호, 정우영도 없고 황희찬도 없고 …

월드컵 우루과이전 대비 … 오늘 밤 파라과이와 평가전

‘중원의 핵’ 정우영 근육피로 결장·공격수 황희찬 군사훈련 입소
김민재 빠진 수비 불안 해소도 과제 … 손흥민 출전 공격에 기대

축구 국가대표팀 ‘중원의 핵’ 정우영(33·알 사드)이 10일 파라과이와의 친선경기에 결장한다.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파라과이와의 경기를 하루 앞둔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정우영은 내일 출전하지 않는다. 출전할 컨디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표팀 주전 미드필더인 정우영은 2일 브라질, 6일 칠레와의 경기에 연이어 풀타임을 소화했다.

하지만 이후 근육의 피로를 느껴 8~9일 회복 훈련만 이어갔다.

벤투 감독은 “어떤 선수가 정우영을 대체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우영의 회복 경과도 주시해 14일 이집트와의 경기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표팀은 공격진의 주축 중 한 명인 황희찬(울버햄프턴)도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이날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황희찬 역시 두 경기를 모두 선발 출전하며 칠레전(2-0 승)에서 선제 결승 골을 넣는 등 활약을 펼쳤다.

벤투 감독은 “황희찬은 팀에 중요한 선수고, 이번 소집이 월드컵 준비에 중요한 만큼 끝까지 함께 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표현한 뒤 “최적의 해결책을 찾겠다. 다른 선수에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상대인 우루과이에 대비해 남미 팀들과 평가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을 파라과이는 앞서 상대한 브라질이나 칠레와 비교하면 전력에선 밀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황희찬, 정우영의 공백 메우기와 함께 수비 안정 등이 대표팀의 과제로 꼽힌다.

벤투 감독은 “칠레전에서 나왔던 것 중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좋은 부분은 이어가도록 하며, 좋은 결과까지 가져오겠다”며 “이번 경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칠레전 완승에도 불안했던 수비 관련 지적엔 “완벽한 경기는 없다. 이긴 경기에도 보완할 점이 있고, 진 경기에도 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고쳐 나가면서 우리 플레이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토트넘)이나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는 김민재(페네르바체) 등 ‘대체 불가’ 자원의 부재에 대비한 ‘플랜 B’ 준비와 관련한 질문엔 “월드컵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른 선수들이 못 하고 있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김민재는 우리 팀에 공수에 걸쳐 큰 영향을 주는 엄청난 선수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떠난 황희찬을 제외하고 소집 중인 28명 가운데 아직 출전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선수의 기용 가능성에도 벤투 감독은 신중했다.

그는 “이번 소집에 황희찬의 군사훈련이나 김영권(울산)의 몸 상태, 김진수(전북)의 재활 등 여러 이슈가 있다. 그런 것과 선수들의 능력, 컨디션,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용할 계획”이라며 “모두에게 다 출전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평소보다 긴 소집인 만큼 선수들을 관찰할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파라과이와 친선경기를 앞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벤투 감독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전 구단 상대 승리 도전

1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FC안양과 K리그2 홈경기 안방 강세 기세로 승리 사냥

K리그에 새 역사를 만든 광주FC가 전 구단 상대 승리에 도전한다.

광주는 11일 오후 6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FC안양과 K리그2 20라운드 홈경기에 나선다.

광주는 앞선 19라운드 충남아산FC와의 홈경기에서 ‘기록의 팀’이 됐다. 허율의 동점골과 헤이스의 멀티골로 3-2 역전승을 기록, 12경기 연속 무패(10승 2무) 질주 속에 가장 먼저 승점 40점 고지를 밟았다.

또 안방에서 9연승을 내달리면서 시도민 구단 홈 최다 연승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안방 강세’의 광주는 기세를 몰아 전 구단 상대 승리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앞선 안양과의 원정경기에서는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번 안양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광주는 올 시즌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완성하게 된다.

홈 연승 기록 경신과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위해 광주는 매서워진 창으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팀의 핵심 엄지성이 U-23 대표팀에 차출되면서 자리를 비웠지만 끈끈한 조직력과 다양한 공격 루트로 2경기 연속 3득점을 만들어냈다.

헤이스와 허율이 공격 중심에 서 있다.

헤이스는 앞선 충남아산전에서 리드를 가져오는 페널티킥골에 이어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선보이면서 역전승의 주역이 됐다. 헤이스는 올 시즌 8골을 넣으면서 리그 최다득점 3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장신 공격수 허율도 강력한 피지컬을 활용한 플레이로 상대 수비진을 제압하면서 올 시즌 4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건희, 하승운, 마이키 등 추가 공격 자원도 출격을 기다리고 있고, 광주의 ‘샛별’ 정호연은 경고 누적에서 벗어나 중원에 힘을 보탤 준비를 끝냈다.

안양은 시즌 초반 부침을 겪었지만 현재 승점 27점(7승 6무 4패)으로 리그 4위에 올라있다. 지난 18라운드 경남FC전에서도 1-0 승리를 기록하며 상승세다.

백성동, 김경중, 조나탄, 심동운 등 공격 라인의 파괴력도 매섭다. 상대전적에서도 안양이 7승 6무 5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광주가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로 홈 연승 행진을 잇고 전 구단 상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장관 전남드래곤즈 신임 감독 “명가 재건”

전남드래곤즈가 이장관(47) 신임 감독을 앞세워 축구 명가 재건을 위해 새로 출발한다.

전남이 9일 전경준 감독에 이어 전남을 이끌 제15대 사령탑으로 이장관 용인대 감독을 선임했다.

다수의 프로 선수를 배출한 이장관 신임감독은 선수들의 장점과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연구하는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2011년 ‘약팀’으로 평가받던 용인대 감독으로 부임해 남다른 용병술로 강력한 공격축구를 펼치며, 팀을 대학축구 최강자의 반열에 올려놨다.

용인대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연속 권역 대회를 우승하며 대학 무대를 휩쓸었다. 이장관 감독은 2021년에는 3관왕 위업을 달성하며 한국대학축구연맹 최우수 감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선수 시절에는 부산(11시즌)과 인천(1시즌) 소속으로 K리그 354경기를 뛴 K리그 레전드이기도 하다.

이장관 감독은 “전남드래곤즈가 나의 축구를 믿고 첫 프로 지휘봉을 맡겨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명문 팀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남의 모습에서 많은 동기부여가 됐고 도전의식을 불러 일으킨다”며 전남의 명가 재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전남만의 강하고 간절한 투지가 있는, 확실한 스타일을 가지고 갈 것이다. 누가 봐도 전남은 다른 팀들과는 다른 축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겠다. 강하고, 쉴 틈 없이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팀을 만들어 즐거움과 감탄을 부르는 공격축구를 이끌어 내겠다. 전남팬들에게 화끈한 재미를 선사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9일 선수단과 상견례를 마친 이장관 감독은 12일 오후 8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경남FC전을 통해 K리그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장관 감독

디섐보 LIV로 간다

브라이슨 디섐보

사우디 자본 후원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참여
첫 대회 우승 상금 50억원 … 패트릭 리드도 합류

메이저 챔피언들인 브라이슨 디섐보와 패트릭 리드(이상 미국)도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로 넘어간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9일 “디섐보의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행을 정통한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며 “리드 역시 LIV 시리즈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여럿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은 현지시간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막전을 치르는 신생 골프 투어다.

10월까지 총 8개 대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와 DP 월드투어(옛 유러피언투어) 소속의 정상급 선수들을 유혹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상금을 내걸었다.

첫 대회 우승 상금이 400만 달러(약 50억원)나 되는데, 이는 올해 마스터스 우승 상금 270만 달러를 훨씬 웃돈다.

여기에 PGA 투어와 DP 월드투어가 소속 선수들의 LIV 골프 시리즈 출전을 금지하자 LIV 시리즈 측에서는 유명 선수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엄청난 계약금까지 쏟아부었다.

더스틴 존슨(미국)은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받고 LIV 행을 택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ESPN은 “2020년 US오픈 챔피언 디섐보와 2018년 마스터스 우승자 리드는 LIV 시리즈의 첫 미국 대회부터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LIV 시리즈의 첫 미국 대회는 30일부터 사흘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다.

디섐보의 에이전트 브렛 퍼코프는 ESPN과 인터뷰에서 “프로 골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브라이슨은 언제나 혁신가의 삶을 살았다”고 사실상 LIV 시리즈행을 부인하지 않았다.

디섐보와 리드가 PGA 투어를 떠나면 LIV 시리즈는 총 9명의 메이저 우승자를 보유하게 된다.

이미 존슨과 필 미컬슨(미국), 마르틴 카이머(독일),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샬 슈워츨, 루이 우스트히즌(이상 남아공), 그레임 맥다월(북아일랜드)이 LIV 시리즈로 이동했다.

타이거 우즈, 저스틴 토머스(이상 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은 PGA 투어 잔류를 택한 선수들이다. /연합뉴스